

새 학사 마련했습니다

부산신학교 교장 이해철 목사



부산신학교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부산신학교의 탄생은 교단 제34회 총회(1979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충청, 호남, 영남 지방에 신학교를 하나씩 설립하기로 한 이때의 결의를 바탕으로 1984년 3월 20일에 문을 열게 되거든요. 개교하기까지 많은 분들의 수고가 있으셨지만, 홍순균 목사를 필두로 하는 설립추진위원회(영남 4개 지방회장 - 오정호, 이재완, 신일웅, 김기봉 목사), 또 정기석 장로를 앞세운 이사회의 헌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홍순균 목사를 초대교장으로, 그리고 동광교회(당시 권유석 목사) 안에 학사를 마련하여 조출하게 시작된 부산신학교는 이후 1988년 교단 제43회 총회에서

4년제로 승격되면서 그 든든한 기초를 놓았습니다. 홍순균 목사를 이어 남봉현 목사, 이재완 목사, 그리고 부족한 제가 교장직을 이어받았는데, 그 어간에 필리핀 PCU & IEC와 학위협정을 체결하는 등 진일보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작년 7월 모리아교회로 학사를 이전하면서, 그 동안 우리 영남인의 소망이었던 단독학사를 지어 올해 8월 31일 학사 봉헌예배를 드린 것은 저희 신학교 역사의 획을 긋는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교장인 저를 비롯하여 학감 김동운 목사, 과장 이승현, 윤창용, 신건일 목사가 수고를 하고 있고요, 22명의 교

수진들이 각기 전공과목들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수는 총 20명입니다(1학년 2명, 2학년 5명, 3학년 7명, 4학년 6명).”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학사를 새로 마련하셨다. 모금과정과 주로 어떤 공간들이 있는지 소개해 달라.

“전체 비용 4억 4천만 원 가운데 2억 8천은 그간 기금으로 관리해 오던 것이고, 이사회가 9천, 나머지는 모금을 통해 충당함으로 빚 없이 바로 봉헌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초대교장 홍순균 목사 때부터 합리적이고 검소한 운영을 통해 재정을 비축한 것이 큰 힘이 되었구요, 여기에 제4대 교장 남봉현 목사 때에 후원회가 조직되어 개교회가 지원하는 모든 후원금을 비축한 것, 그리고 제5대 교장 이재완 목사의 사명감과 추진력이 모여져 오늘의 역사가 창출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저는 그저 전임 교장들의 수고의 열매를 누리고 있을 뿐입니다.”

“이번에 마련된 학사는 모리아교회(임명진 목사)의 깊은 배려 가운데 모리아교회 교육관 3층과 4층에 증축하여 신학교만의 단독 교사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용의 편리와 품위를 위해 별도의 진입구와 출입구를 만든 것도 특징입니다. 3층에는 사무실, 교장실, 소강당, 도서실, 라운지가 있고, 4층에는 교실 네 개(중생, 성결, 신유, 재림)와 기계실, 화장실 등이 마련돼 있으며, 향후 멋진 테라스를 조성해 쉬의 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전국적으로 지방신학교의 운영이 어려운 이때, 이번 학사 건축을 계기로 어떤 활로를 모색하고 있는지?

“모두가 다 그렇겠지만 학생수가 줄고 있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학위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번 학사개관을 기점으로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장학재단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전장학금제도를 실시할 것이구요, 낮시간에 바이블 칼리지를 운영하여 평신도 지도자를

양성하며, 특별히 부산지역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신앙훈련을 시키는 것도 적극 모색할 것입니다. 이 또한 해외선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전문 부교역자를 위한 교육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전담교수를 일단 한 분이라도 모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봅니다. 결국 새로운 봄이 조성되고, 학생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졸업생들은 주로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가?

“23회 졸업식을 통해 366명의 사역자를 배출했는데요, 벌써 하늘나라에 가시거나 은퇴를 하신 분이 10명, 현재 우리 교단에서 목회하는 목사가 120명, 전도사가 60명입니다. 타교단으로 가서 사역하는 이가 22명이구요, 그 외 다수의 사모와 100여 명의 평신도 지도자를 길러낸 바 있습니다.”

지방신학교 교장으로서 교단에 대한 바람은 무엇인가?

“지방신학교 현안 및 대안을 얘기할 때 보통 나오는 것이 서울신대의 분교화, 학점은행제, 사이버 대학 등등입니다. 그런데 이 모두는 학위문제와 연결돼 있습니다. 이게 해결돼야 그 활로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또 졸업생의 창구를 단일화하는 것(3학년까지는 각기 지방신학교에서 4학년은 서울신대에서 공부)은 교단의 화합에도 일조하리라 봅니다. 아울러 큰 틀에서는 총회의 지도를 받으나, 학교의 자율성도 주셔서 시대에 부응하는 다양한 교육 시스템(복지와, 유아교육과 등)을 갖출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두 쉬운 문제는 아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큰 인물을 부르시는 데는 독특성과 다양성이 있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얘기를 마치기 전에 동광교회(윤창용 목사)에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초창기부터 지난해까지 약 25년간 저희 신학교를 위해 공간뿐 아니라 제반 경비마저 부담해 오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